



'93년도 크리스마스 스티 발행

# 마음과 마음을 잇는 크리스마스 스티 모금운동

조근수/대한결핵협회 사업부장

올해의 크리스마스 스티의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 10종을 시리즈로 선정하였다. 소재로 선정된 야생화의 도안은 지난 '90년도 '시집가는 날'의 도안을 맡아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불란서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IUATLD) 연차대회의 크리스마스 스티 콘테스트에서 1위 입상의 영광을 찾이한 바 있는 도안가 장

완두 씨가 맡아 주셨다.

크리스마스 스티의 도안은 나라마다 그 나라 특유의 독특한 소재로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그 스티의 모양도 다양하고 그 크기도 각각이며 그 속에 표현되는 도안 내용도 화려하건 수수하건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같은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썰은 1904년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한 우체국 직원인 「아니 날홀벨」이 그때 결핵으로 고생하며 죽어가는 많은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돌보아 줄 결핵병원을 설립하려고 창안해 낸 자선운동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크리스마스 썰 모금운동은 지역과 종교와 정치를 초월한 인간애로써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목표를 향하여 수행하고 있는 운동인 것이다.

크리스마스 썰 운동은 대중들에게 결핵에 관한 계몽과 교육을 실시하며 우리들의 건강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행동양식을 제고시키려는 국민운동으로써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인 모금에 참여한다는 이념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썰 운동은 대중적이면서 단기간의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면서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 실시되는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사람의 작은 그리고 부담 없는 정성의 표시를 모아 주위에 건강에 관한 이해를 증진 시키면서 불우한 이웃 결핵환자를 위한 기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 크리스마스 썰이란?

결핵퇴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결핵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연말 연시 때 발행, 모금하고 있습니다.

### 크리스마스 썰 어떻게 사용되나?

썰은 크리스마스카드, 엽서 혹은 선물, 소포 등에 붙입니다. 이로써 받는 이에게 기쁨을 주고 보내는 여러분은 직접 결핵퇴치사업에 참여하며, 결핵환자를 돕는 사랑- 징표로 표시됩니다.

### 크리스마스 썰 성금은 어디에다 쓰이나?

작은 정성으로 모아진 썰 성금은 우리나라의 결핵을 없애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 1) 결핵계몽 : 결핵지식 보급과 참여촉구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 2) 엑스선검진 : 20개 이동엑스선 검진반으로 연간 140만명 검진
- 3) 결핵균 검사 : 균양성환자 발견과 보건소 등록환자 추후관리 객담검사 연간 28만건
- 4) 환자진료 : 9개 부설 복잡자의원에서 연간 15만명 진료



- 5) BCG생산 : 매년 결핵예방약 136만 명분 생산 무상공급
- 6) 조사연구 및 훈련 : 결핵관리 정책 수립 연구와 자료제공 및 결핵요원의 훈련과 국제교류
- 7) 진료지원 : 불우결핵환자 수용시설 진료비 지원

### 세계적인 싼운동

1904년 덴마크에서 심성이 착한 우체국 직원 '아이날·홀벨'에 의해서 세계 최초

로 발행된 싼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고, 1907년 미국의 적십자사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셀」양에 의해 전세계의 운동으로 확산되어 현재 80여개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캐나다 선교의사 「셔우드·홀」 박사에 의해 처음 발행되서 오다가 1940년 해외추방됨으로 중단되었으나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 한번도 거르지 않고 올해도 41년째 발행되고 있습니다.

## 야생화, 자연의 숨결

김영태/시인

한국의 야생화(野生花)는 들뜬에 그냥 버려진 풀이나 꽃이 아니다. 주인없는 꽃들이지만, 그들이 피어 있는 아름다움은 백합이나 장미같은 여왕다운 위치에서 한발자욱 빗겨나 소박함과 순결함으로 미소짓고 있다.

야생화라지만 거칠고 투박함 대신 자연 속에 줄기를 내린 그 꽃들은 「마음의 등불」이나 다름없다. 나그네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문득 만나는 따듯한 등(燈)같다 할까.

한국의 야생화 이름은 무명(無名)에서 누군가 겸허하게 이름붙인, 아니 약간 우스꽝스러운 다른 무명의 이름들이다. 「얼레지가」 그렇고, 「이질풀」 「약모밀」 「닭의 장풀」 「참나리」 「메발톱꽃」들이